

데이터베이스 광장

— 국내 데이터뱅크별 소식 및 신규서비스 —

데이콤, 『천리안』

▶ “국군장병 위문편지”를 PC통신으로 보낸다.

- 천리안, ‘국군장병에게 위문편지 보내기’ 서비스 개발
- 올해 연말연시 및 구정까지 계속

학생이나 개인이 편지나 우편엽서를 이용하여 직접 작성하여 보냈던 ‘국군장병에게 위문편지 보내기’가 이제는 첨단 컴퓨터통신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데이콤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국군장병의 사기를 진작하고 편지쓰기에 대한 사회 일반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자사의 종합정보서비스인 「천리안」을 통해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3일까지 일선장병과 소말리아에 파견된 육군상륙수부대 장병들에게 보내는 ‘국군장병에게 위문편지 보내기’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에 데이콤이 「천리안」을 통해 ‘국군장병에게 위문편지 보내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은 그동안 학생층이나 기타 관심있는 개인에 의해 명맥을 유지해 왔던

위문편지가 점차 사라져가는 현실에서 컴퓨터통신이란 새로운 정보매체를 이용, 국군장병에게 위문편지 보내기를 활성화하여 국군장병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천리안」이나 「천리안POP」 가입자뿐만 아니라 비가입자도 「천리안 GUEST」 서비스를 이용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천리안」의 경우 초기화면에서 “16.스페셜코너”를, 「천리안POP」의 경우에는 “4.게시판”을 선택한 후 “200.국군장병에게 위문편지 보내기”를 선택하면 된다.

데이콤은 편지쓰기에 대한 사회일반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불러 일으키고 대국민 정보마인드 확산을 위해 이 서비스를 연말연시 및 구정까지 계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 데이콤, 천리안 통해 「농림수산정보」 서비스 개시

데이콤은 (재)농림수산정보센터와 「농어민 정보통신이용 활성화 사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9월 14일 曹京植 농림수산정보센터 이사장, 申允植 사장, 농림수산부 관계자 및 농어민 대표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수산정보서비스」 개통식을

가졌다.

데이콤이 농어민 정보통신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림수산정보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7월부터 개발을 시작, 이날 개통한 「농림수산정보」는 미국, 일본, EC 등 선진국의 농림수산관련 정책 및 생산, 기술동향을 제공하는 「농림수산해외정보」를 비롯, 농경지, 농가인구, 농가소득 등 주요 경제지표를 그림으로 제공하는 「도표로 본 한국농업」, 농어촌 발전기금의 사업별 예산 및 지원방법, 신청절차 등을 수록한 「농업금융」 그리고 배추, 사과등 31개 주요 청과물의 지난 4년간('89~'92) 거래가격과 물량추이를 그래프로 표시해주는 「청과물 출하지원정보」등 모두 10개 정보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전자게시판서비스인 「농산어촌사랑방」을 통해 전국의 농어민들이 자신의 농사기술이나 경험, 이웃농가의 영농사례, 마을행사 등의 내용을 전자우편이나 온라인 대화를 통해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소비자와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농수산물 직거래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이 서비스의 장점이다.

데이콤과 농림수산정보센터는 농어민들의 정보통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개인용 컴퓨터를 보유한 영농단체와 영농후계자를 대상으로 3백명을 공개선발, 정보통신교육과 함께 통신장비인 모뎀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한편 천리안 가입비와 1년간의 정보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한편 데이콤은 「농림수산정보」를 농림수산관련 종합데이터베이스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오는 '94년말까지 20여종의 농

어업경영관리, 지원용 소프트웨어와 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관련 정보를 적극개발, 제공할 계획이다. 데이콤은 또 우리나라 농민과 연변조선족 자치주 농민들이 「천리안」을 통해 농업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올해말까지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천리안 유료가입자, 10월 18일자로 10만명 돌파

- 5년만에 이용자수 1백배 증가
- 「차세대 천리안」 개발위해 '97년까지 148억원 투자

불모지인 국내 정보사회의 개척을 선언, 지난 '88년 5월에 컴퓨터를 통해 「생활백과정보」, 「관광명소」 등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정보은행(DB)서비스로 출발한 천리안이 첫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지 만 5년 5개월만인 지난 10월 18일 총 10만6백81명의 가입자를 확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입자 10만명을 돌파했다.

18일 현재 「하이텔」과 「포스서브」의 유료가입자는 각각 8만7천명과 3만5천명으로 「천리안」 유료가입자까지 합하면 약 22만여명에 달하나 이들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는 가입자를 포함하면 국내 PC통신 인구는 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천리안이 제공하는 정보수에 있어서도 '88년 5월 당시 「생활백과정보(연세대학교)」, 「관광명소(관광공사)」, 「한국경제신문뉴스」등 모두 3종의 생활정보로 출발해서 '90년에는 89종, '91년 1백30종, '92년 8백13종으로 짧은 기간동안 빠르게 성장해

왔다.

또 가입자들이 천리안의 각종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천리안용 호스트컴퓨터에 접속한 사용시간도 '88년의 3만5천1백84시간에서 '92년에는 4백31만6천5백88시간으로 초기때보다 무려 1백23배나 증가하였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DB) 이용현황을 보면, 재테크, 취업, 뉴스(신문), 교육, 오락관련 정보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차세대 천리안」 개발비로 '97년까지 1백48억원 투입

한편 데이콤은 오는 '96년까지 약 9백80만대의 PC가 국내에 보급될 것으로 예측, '97년까지 1백30만명의 천리안 가입자 유치를 목표로 양질의 정보제공을 위해 1천여개에 달하는 IP(정보제공자)를 발굴, 집중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데이콤은 이를 위해 매년 천리안 매출액의 2~5%를 정보제공료 및 개발용역비로 IP에게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아울러 음성 및 문자, 화상등 복합처리가 가능한 멀티미디어 기술을 수용한 「차세대 천리안」 개발을 위해 오는 '97년까지 모두 1백48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는 한편 전자화랑/전자신문과 같은 신규상품을 빠르면 '95년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데이콤은 또 다가오는 무선데이터통신 시대에 대비, 도로망, 지형정보와 같은 서비스개발을 조기에 착수하고 「농림수산정보망」과 「의료종합정보망」, 「부동산정보유통망」과 같은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정보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행정, 학술, 보험, 운송망 등 타정보망과도 단계적으로 연계, 「천리안」을 세계적인 종합정보

망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천리안 「취업정보」, 취업시즌 맞아 이용량 급증

사상최고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본격적인 취업시즌을 맞아 컴퓨터통신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각종 취업 및 채용관련 정보의 이용이 급격히 늘고 있다.

「천리안」의 10월 이용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취업관련 정보의 이용량은 10월 들어 일평균 2백 34시간으로 지난 8월의 1백16시간, 9월의 1백25시간보다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 사용량은 10월 1일~15일 기간 「천리안」 전체DB 이용시간 221,336시간의 15.9%를 차지하는 분량인데, 이러한 추세는 중소기업의 채용이 본격화되는 11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현상은 취업 희망자들이 일일이 각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모집요강을 얻거나, 인쇄매체에 보도되는 취업정보를 스크랩하는 대신 가정에서 혹은 대학내의 취업창구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고, 남은 시간은 치열한 경쟁에 대비하여 외국어 학습이나 수리능력시험 등 입사시험 준비에 활용하는 등 컴퓨터통신을 최대로 활용하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PC통신, 「HiTEL」

▶ 하이텔, 법률상담 무료서비스

한국PC통신은 최근 한기찬 법률사무소와 정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하이텔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기찬 법률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민법과 형법의 핵심적인 조항에 대해 4백여 가지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문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상담을 받습니다’ 코너를 마련,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법률문제에 관해 한기찬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설문조사’란을 통해서도 법률관련 서비스에 관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하이텔, 「대한의학협회 정보통신망」(CUG) 개설

10월 4일부터 대한의학협회의 독자적인 정보통신망이 개설됐다. 학·협회 및 각 임상학회의 공지사항 전달과 협회회원 상호간의 의견 및 정보교환의 공간이 될 예정이다. 향후 각 임상학회 전용게시판을 통해 의학전문 논문들을 DB로 구축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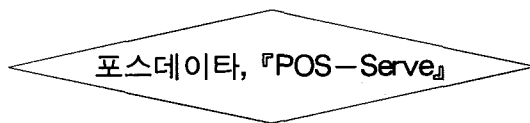
▶ 한국통신 교육정보 새롭게 개편

9월 27일부터 한국통신 교육정보가 새롭게 제공된다. 먼저 9월 1일부터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 학습정보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령어 개선과

메뉴위치를 변경한다.

온라인 학습정보를 그림정보로 제공하며 주단위로 종로학원에서 만든 문제를 온라인 상태에서 학습을 하는 것으로 국민학교 1학년 바른생활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 수학까지 모두 20과목이 주 단위로 교과과정에 따라 서비스되고 있다.

한편 이미 서비스되고 있는 다운로드 학습은 계속 서비스되며 앞으로는 중학교 영어과목에 음성정보를 추가하여 영어듣기평가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 포스서브, 9600bps 서비스 개시

포스데이타는 최근 자사의 PC통신서비스인 포스서브를 고속전송 방식인 9600bps (bit per second; 데이터 전송속도)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이 전송방식은 기존의 2400bps나 1200bps 방식보다 전송속도가 4~8배가 더 빠르므로 이용자는 같은 기간내에 더 많은 정보를 서비스 받을 수 있고 그만큼 이용요금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포스서브는 12개회선을 통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서비스 지역은 이용자가 가장 많은 서울과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향후 포스서브는 서비스의 이용현황에 따라 서비스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회선수도 점차 늘릴 계획이다.

9600bps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화번호는 02) 538-4668이며 이용요금은 기존의 전송방식과 동일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모뎀도 9600bps를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 포스서브, 무역·운송DB 서비스 개시

포스서브는 지난 10월 11일부터 육상·해상·항공등 모든 운송수단의 운송스케줄을 한눈에 볼수 있게 하는 운송DB와 무역실무에 관한 정보를 중심으로 한 무역DB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번에 포스서브를 통해 제공하는 무역·운송DB는 정부의 공업발전기금 지원을 받아 포스데이타와 보성데이타가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작년 7월에 개발에 착수하여 1년만인 지난 8월에 개발완료한 것이다.

각 DB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살펴보면 무역DB에서는 무역실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운송·보험·선적에 필요한 각종 서류정보를 비롯하여 나라별·상품별 도량형 현황, 나라별 통관절차, 심사기준 및 기관등의 정보가 있다. 이와함께 무역계시관을 통해 바이어정보나 구인/직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또 운송DB에서는 화물차량, 화물선, 비행기등 각종 운송수단의 운송스케줄정보(출발일시, 장소, 도착시간등)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역뉴스DB에서는 각종 상품속보를 비롯하여 운송속보, 외환시세정보, 무역관계 법규등을 제공하고 있다.

무역·운송DB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포스서브를 통해 별도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는

데, 가입비는 1만원이며 서비스 이용료는 10시간을 기준으로 월 4만원이다. 10시간 초과시에는 분당 1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포스서브는 이 DB를 개선하여 오는 '94년부터는 모든 운송수단의 예약서비스까지 제공할 계획이며, '97년경에는 전세계의 운송스케줄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 포스서브, 해외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국제전용선 개통

- 컴퓨서브의 CNS(CompuServe Network Service)망과 국제 전용회선 연결
- 국제 통신회선요금 대폭 인하
- 전용선 개통 기념으로 10월 한달간 무료서비스 실시

포스데이타는 자사의 PC통신서비스인 포스서브의 해외DB 이용자를위해 국제 전용선을 확보하고 지난 10월 1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포스서브는 국제전용선을 확보함으로써 이용자의 국제회선 요금부담을 대폭 덜어 주게 되었고, 따라서 해외DB 이용을 활성화하여 국내 이용자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 일조를 하게 되었다.

이번에 개통하는 국제전용회선은 포스서브의 자체통신망인 포스넷(POS-NET)과 미국의 최대 PC통신서비스인 컴퓨서브의 통신망인 CNS(CompuServe Network Service)를 상호 연결한 것으로, 이로써 컴퓨서브 이용자는 기존에 분당 540원을 지불하던 국제회선료를 분당 25센트(약 200원)만 지불하면 되게 되었고 CNS를 통해

일본의 니프티서브(NiftyServe)나 세계최대의 데이터베이스 게이트웨이인 이지넷(EasyNet)도 분당 33센트(약 270원)의 회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포스서브는 해외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국제 전용선의 개통을 계기로 10월 한달동안 국제회선 무료서비스를 실시한다.

◆ 코리아네트, 「인포서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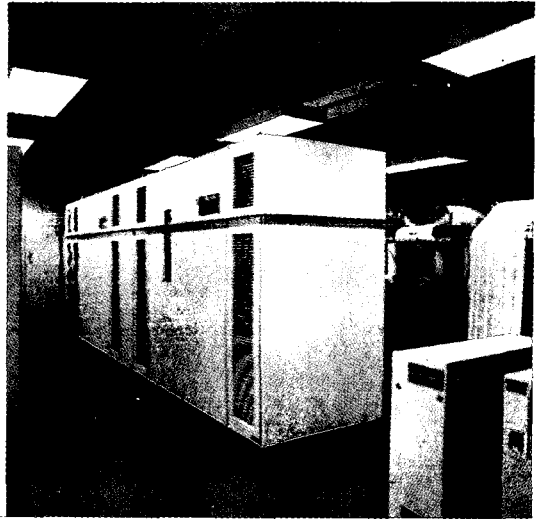
▶ 인포서브 주니어, 10월 1일자로 서비스 개시 1주년 맞아

지난 10월 1일자로 서비스개시 1주년과 회원수 5천명을 돌파한 인포서브 주니어는 앞으로 보다 질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회원가입 5천명을 기념하여 5천번째 회원에게 기념상품이 주어졌고, 4,999번째와 5,001번째 가입회원에게도 소정의 상품이 주어졌다. 코리아네트는 이달안으로 6천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연말안에 1만명의 회원을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 인포서브 주니어는 무료로 서비스되고 있다.

▶ 인포서브 공개자료실 강화

인포서브 주니어와 동호회 자료를 공유 하였던 인포서브는 인포서브 주니어의 동호회정리에 따라 폐쇄된 동호회 자료를 통합하여 서비스 중에 있다. 현재 약 2,000여



개의 공개자료가 서비스되어 회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 인포서브 기업홍보 광고란 개설

인포서브에 기업홍보 광고란이 개설된다. 앞으로 기업홍보 광고란 업체와 고객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회사소개, 상품소개 및 주문, 고객상담, 기업뉴스 등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PC통신을 이용하여 서비스하게 된다.

▶ 인포서브 부동산정보 CUG 개통

인포서브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위한 부동산 전문정보 서비스를 개시했다. 열림정보통신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들 간에 매매, 임대, 매물 등 신속한 부동산 관련정보를 공유하여 부동산 업체들의 업무효율을 높여 주는 계기가 되리라 판단된다. [B]